

지역의 인문사회 연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거점국립대 3개교 선정

- '2026년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지원 사업' 신규 선정 결과 발표, 5년간 대학당 연 40억 원, 총 200억 원 지원
- 거점국립대학 내 '인문사회 연구원' 설립·운영을 통한 대학 부설 연구소 관리·지원 체계 구축, 학문후속세대 양성, 공동연구 활성화 등 추진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5월 20일(수)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지원 사업을 수행할 거점국립대학 3개교를 최종 선정하였다.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지원 사업은 지역에서 인문사회 분야 학문을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거점국립대학에 '인문사회 연구원'을 설립하여 지역의 인문사회 연구를 지원하고 지역에 정주하는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올해 선정된 대학 3개교에는 대학별로 최장 5년(3년+2년) 간 총 200억 원(대학당 연 4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거점국립대학 3개교는 다음과 같다.

< 2026년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지원 사업 신규 선정 대학 >

대학명(3개교)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	---------------

선정된 대학은 ① '인문사회 연구원'을 설립·운영하여 인문사회 분야 대학 부설 연구소를 총괄적으로 관리·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② 인문사회 연구원 소속의 학술연구교수(박사급 연구자)를 최소 20명 이상 채용하여, 지역에 정주하는 전임 연구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한다. ③ 인문사회 연구원 주도로 산하 대학 부설 연구소에 연구 인력 및 연구비 등을 지원하여, 대학 부설 연구소의 인문사회 분야 기초 연구 및 중점 주제** 연구를 활성화한다.

- * 연간 6,000만 원 수준의 인건비 보장, 고경력 연구자와의 멘토링, 독립적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비 지원(펠로우십), 지역 정착을 위한 대학의 재정·제도적 지원 등
- ** 대학별 특성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중점 주제 연구소’ 를 자율적으로 지정(2개 이내)하고, 연구 인력(지역 내 타 대학 인력 포함하여 지역 공동연구 수행) 및 연구비 지원(연 8억 원 이상 투자)

2026년 신규 선정 공모에는 거점국립대학 9개교가 모두 지원했으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서면 검토와 대면 평가를 거쳐 3개교를 선정하였다. 평가는 ▲대학의 연구 역량, ▲인문사회 연구원 구성·운영 계획, ▲학문후속세대 및 연구자 양성 계획, ▲인문사회 연구원과 대학원 간 연계 계획, ▲기초 연구 및 융·복합 연구 계획, ▲재정투자 계획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최종 선정된 대학의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다.

< 2026년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지원 사업 신규 선정 대학의 주요 계획 >

대학명	인문사회연구원명(연구원장)	학술연구교수 채용 ('26.기준)	중점 주제 연구소명: 연구 주제
경북대	경북인문사회연구원 (정우락 국어국문학과 교수)	30명	영남문화연구원 : K-콘텐츠 개발과 지역문화의 세계성 K-포용사회연구소 :K-포용사회와 지속가능한 미래공동체
전남대	전남광주인문사회연구원 (이명규 교학부총장)	23명	민주주의미래연구소 : 포용사회를 위한 다층적 민주주의 로컬리티상생연구소 : 공공 상생을 위한 로컬리티 자치모델
전북대	전북인문사회연구원 (윤명숙 대외·취업부총장)	22명	호남학 연구소 : 호남 인문 지형의 통합과 한국학의 지역기반 구축 SI미래사회통합연구소 : 축소사회의 사회적 고립 진단과 AI 융합 사회통합모델 구축

특히 경북대는 학술연구교수와 전임교원 중심의 ‘융·복합 연구팀’을 구성하도록 하여, 학술연구교수의 성장을 위한 공동연구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다. 전남대는 민주주의의 재구성과 지역자치모델 구상이라는 시의성 있는 의제를 다루면서 대학 부설 연구소의 적극적인 통합 및 기능 전환을 계획하여, 대학의 연구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소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한 점이 돋보였다. 전북대는 인공지능(AI) 융합 인문사회연구를 핵심 추진 방향으로 제시하고 5년간 총 8.5억 원 규모의 ‘인문사회 학술연구 지원금’을 조성하여 본 사업에 추가 지원할 예정으로, 인문사회 분야 연구에 대한 과감한 투자 의지를 보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지원 사업이 대학의 인문사회 분야 연구력 강화와 지역 학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선정된 3개 대학에 대한 상담(컨설팅)을 진행하고 대학과 수시로 소통·협약하며, 거점국립대학이 지역의 인문사회 분야 교육·연구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2026년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지원 사업 주요 내용[요약]
 2. 2026년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지원 사업 선정대학 주요 계획

담당 부서	대학정책관 학술연구정책과	책임자	과장	채 흥준 (044-203-6870)
		담당자	사무관	이영선 (044-203-6883)
			주무관	조은주 (044-203-6884)



□ **사업 개요**

- (사업명)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지원 사업
- (추진근거) 「고등교육법」 제7조, 「학술진흥법」 제5조 등
- (사업목적) 거점국립대학의 기초학문 보호 역할 등을 고려하여, 지역 내 연구 거점 기반 마련 및 신진 연구인력 양성, 기초·융복합 연구소 육성
- (지원대상) 지역 거점국립대학
- (지원내용) 대학 내 지역 ‘인문사회 연구원’을 설립하여, 연구소 관리체계 구축, 학문후속세대 양성, 지역대학 등과 공동연구 수행
- (지원기간) 총 5년(3+2년)
- (지원예산/규모) '26년 총 120억 원 / 총 3개교
 - 교당 연간 40억 원 이내(간접비 포함) ※ 대학에 총액으로 교부

□ **주요 추진 내용**

- (인문사회 연구원 설립·운영) 대학의 자율적 인문사회 분야 연구소 관리·지원 체계 확립 및 지역 내 학술 연구플랫폼 기능 수행
 - ※ ▲ 연구소의 개편·조정(확대, 통합, 신설 등), ▲ 현황 조사·공개, ▲ 연구소 운영 실적 평가 및 운영 지원, ▲ 지역 내 공동연구 및 협력 확대 등
- (지역 정주형 연구 인력 양성) 인문사회 연구원을 통한 안정적인 연구 환경 제공과 연구 지원 강화 등으로 우수 연구 인력 유입 및 양성
 - ※ 전임교원의 연구 몰입 및 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학내 제도·방안 마련, 인문사회 연구원당 20명~30명(초과 가능)의 학술연구교수 채용 및 활용 의무를 통해 지역 일자리 확보·지원
- (기초·융복합 연구 강화) 연구원 산하 연구소의 기초·융복합(중점 주제) 연구 지원을 통한 기초학문 보호·육성 및 연구 성과의 사회적 기여 강화
 - ※ 대학별 특성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중점 주제 연구소’를 자율적으로 지정(2개 이내)하고, 연구 인력(지역 내 타 대학 인력 포함하여 지역 공동연구 수행) 및 연구비 지원(사업비 20% 이상)

경북대

경북인문사회연구원 개요

비전

공존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는 미래형 K-인문사회 융복합연구 거점

핵심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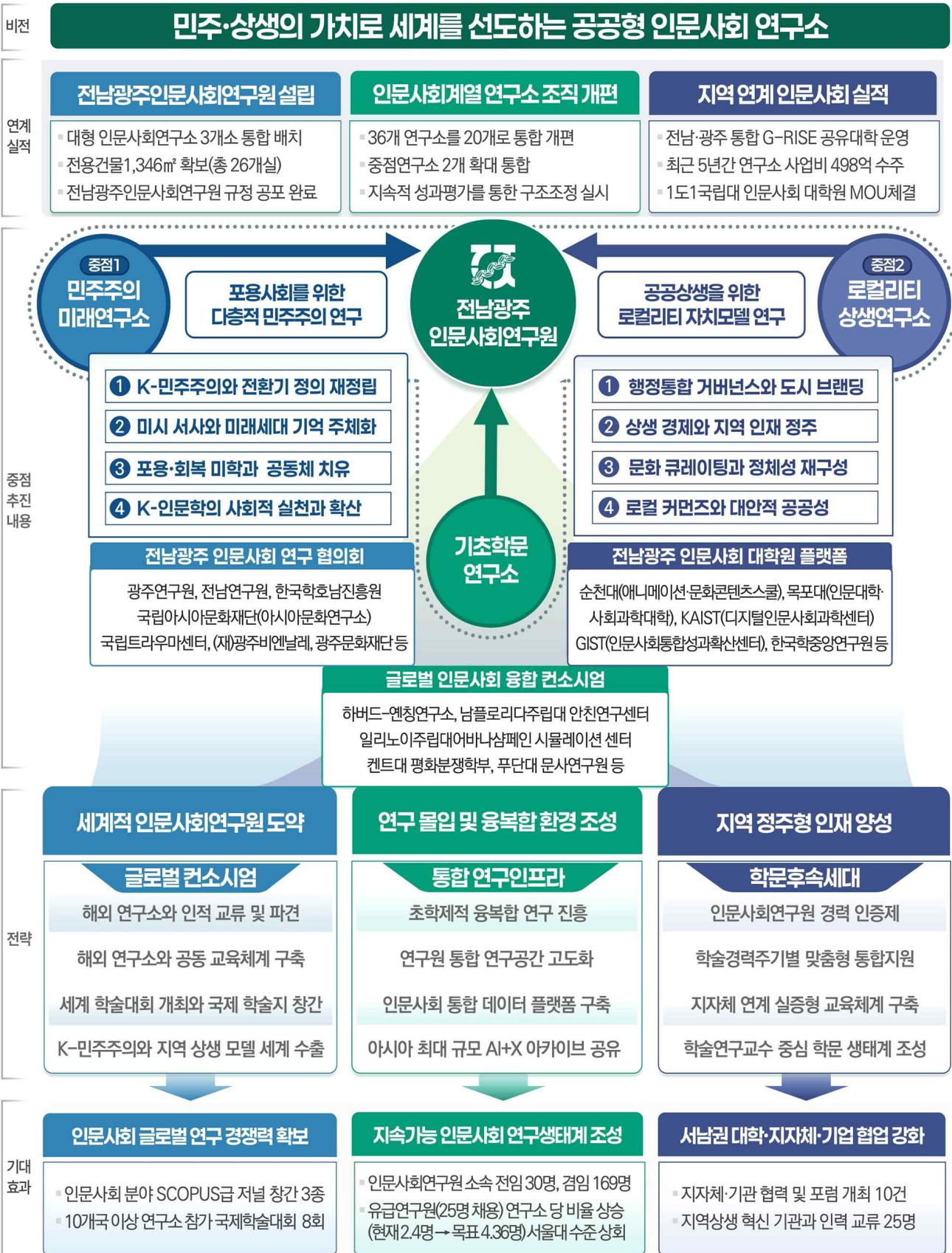


슬로건

시공을 잇는 영남의 지성, 새로운 사회를 여는 첨단 인문

4대 전략 목표

	인문사회 연구원 거버넌스 체계화	지속가능한 연구생태계 구축	인문사회 연구 네트워크 구축	K-콘텐츠 확산과 지역·국가 발전 기여
전략 과제	1-1 지역 거점 인문사회 연구허브 구축 1-2 산하 연구소 재편과 융복합 연구 추진 1-3 연구 성과 통합 관리 및 혁신 지원	2-1 연구인재 성장 및 이동 체계 구축 2-2 지역 정주형 연구생태계 강화 2-3 대학원-연구원-전임교원 연계 프로그램 운영	3-1 대구·경북 지역 인문사회 연구 네트워크 강화 3-2 인문사회 연구인력 매칭 플랫폼 구축 3-3 수도권 인재 유입 및 지역 정주 지원	4-1 경북대-경상권역-대한민국을 잇는 '트리플-K' 연구 확산 모델 구축 4-2 인문사회-첨단지능의 융복합 지식 창출 4-3 지역사회와 국가에 기여하는 문제해결형 연구 활성화
중점 추진 내용	① 연구원 설립과 산하 연구소 개편 추진 ② 융복합 연구 특화를 위한 양대 중점주제 연구소 (영남문화연구원, K-포용사회연구소) 운영 ③ 연구 지원 프로그램 패키지 C.O.R.E. 운영	① 지역이동+경력이동을 통한 인재순환(人材循環) 5개년 로드맵 M.I.G.R.A.T.E.구축 ② 지역 정주형 학술연구교수 H.O.M.E. 정착 패키지 운영 ③ 교육 연구 통합 지원 모델 KNU-EDGE-BRIDGE-PILLAR 운영	① 대구·경북 지역 인문사회 학술 포럼과 성과 공유 플랫폼 운영 ② 지역기업-대학-지자체-정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인재 매칭 프로그램 운영 ③ 청년·가족·수도권 이주자 초기 정착 지원	① 타 거점 인문사회 연구원 초청 세미나 및 국제 학술대회 추진 ② 첨단지능과 인문사회 연구의 융복합 촉진을 위한 융합연구 허브 기능 강화 ③ 지역 전략산업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연구과제 공동수행



비전

AI 전환시대 호남학기반 인문사회연구원 구축과 미래융합인재 양성

슬로건

AI전환과 인구변동 시대에 대응하는 인문사회 기초연구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학술성과와 정책 영향력을 창출하고 차세대 연구 리더를 양성

목표

- 1. 세계적 수준의 인문사회 기초연구 성과 창출
- 2. 전통과 미래를 연결하는 인문사회 우수 핵심 연구인력 양성
- 3.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구축
- 4.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 및 정책기여

전략

대학 차원의 다학제적
융합·국제집약 연구체계 강화

세계적 수준의 인문사회
기초연구 선도 연구소 육성

테마중심의 글로벌 리더 양성 및
지역·국제 확산 역량 강화

추진체계

- 연구소 기능 재편·연계(순수/응용/지역의제)
- 연구소 선정·평가체계(인문사회형) 고도화
- 장기 의제형 집단연구 지원 및 성과 확산
(저서·DB·아카이브·정책환류)

- 국제수준 연구거점 구축 전략 수립
- 학제 간 집단융합연구 수월성 확립
- 장기 아젠다 연구(지역소멸·돌봄·문화유산 등) 활성화
- 디지털인문학·데이터 기반 공동연구 및 성과 확산

- 테마 중심 의제 연구역량 강화 및 전문화
- 연구인력(신진·학술연구교수·대학원생) 글로벌 역량 강화
- 안정적 연구 몰입·지원 환경 조성
- 후속세대 우수 연구자 유치 및 양성

중점추진내용

- 중점 의제 중심 연구소 재편 및 유연한 연구조직운영
- (가칭) 인문사회기초연구소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연구소 운영·성과관리 지표(전공군 세분화) 고도화
- 저서·번역·총서·아카이브·DB구축으로 연구 인프라 강화
- 성과 발표회·국제 심포지엄 개최 등 연구성과 확산
- 지역사회·지자체공공기관 연계 “정책·문화 환류” 체계 구축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 JBNU 인문사회기초연구 허브(거점) 구축
- 우수 연구소 벤치마킹 및 성공모델 기반 운영전략 수립
- 중점테마연구소 중심 장기 아젠다 연구(지역학·사회 정책·문화전환)
- 학제 간 집단연구·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연구 로드맵(5~10년) 수립 및 공동연구 전략 도출
- 연구성과 플랫폼 운영(오픈세미나·데이터/자료 공유)
- 대형 국가프로젝트 참여 지원 및 국제협력 성과 공유

- 테마 중심 연구인력(신진/중견/후속세대) 집중 지원
- 학문후속세대 양성 프로그램(장려금·포닥·연구조교) 연계
- 국내외 교류(공동세미나·워크숍·파견/초청) 확대
- 지역문제 해결형 “인문사회 정책랩” 및 공공학산 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 인문사회 연구역량 강화(데이터·도구·윤리) 지원
- 지자체·연구기관·기업(문화/콘텐츠 포함) 협력 기반 구축
- 우수성과의 지역 특성화 사업과 연계 지원

기대효과

대학 차원의 다학제적 융합·국제 연구체계 강화로
인문사회 기초 학문 성과창출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

우수연구 수행 및 국제협력 증진,
아카이브·DB·총서 등 지식자산 체계
구축 촉진

인문사회 분야 우수 연구자·후속세대 양성 및
사회적·정책적 파급력 제고